

새겨진 문자, **한자**의 기원

한자는 약 3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예요.
긴 시간 동안 한자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.
과연 3천 년 전의 모습도 지금과 같을까요?

01 한자의 모양, 무엇을 닮았을까?

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 때 만들어졌고, 시간이 흘러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요.
아래의 글자를 보고 알맞게 짝지어 보세요.

亅 .

. 물 .

. 人

㇏ .

. 사람 .

. 水

㇏ .

. 달 .

. 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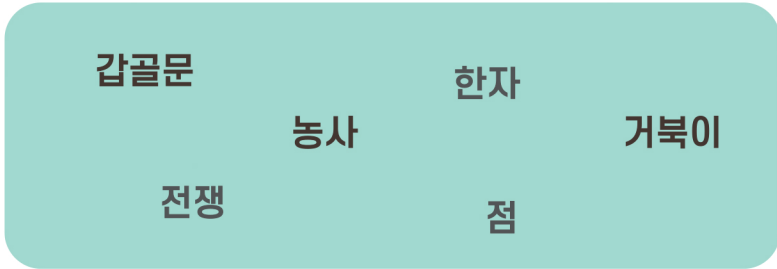
02 왜 껍질이나 뼈에 글자를 새겼을까?

거북이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새겨진 한자를 **갑골문**이라고 해요.
왼쪽의 갑골문을 보고, 새겨진 글자를 따라 써 보세요.



갑골문은 왜 딱딱한 껍질이나 뼈에 새겼을까요?
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.

03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?



약 3천 년 전, 중국의 상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신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 을 쳤어요.  의 껍질을 불에 그을리면 '쩍' 하고 금이 갔어요. 사람들은  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,  가 성공할 수 있을지 갈라진 금의 모양을 보고 결과를 해석했고,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. 이렇게 새겨진  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 가 되었어요.

04 나만의 갑골문 써보기

갑골문에는 **점을 친 날짜와 사람**, **점을 친 내용**이 새겨져 있었어요. 왼쪽 갑골문의 예시를 참고해서, 나만의 갑골문을 적어 보세요.

